

# 캔버라 한인성당



| 전달신부 | 양명식 대건안드레아

| 주일미사 | 오후 3시

| 고해성사 | 오후 2시 30분

| 성당주소 | 7 Bindel Street, Aranda, ACT 2614

| 이메일 | canberra.kcc@gmail.com

| 전화 | 0490-795-346

| 카카오 채널 | '캔버라 한인성당' 검색

## | 주일미사 성가번호 |

입 당	예물 준비	영성체	파 견
423 (천년도 당신 눈에는)	220 (생활한 제물)	499 (만찬의 신비)	12 (주님을 기리나이다)

제 1독서 | 잠언 9,1-6

<어리석은 이는 누구나 이리로 들어와라!>

화답송 |

◎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좌) 나 언제나 주님을 찬미하리니, 내 입에 늘 찬양이 있으리라. 내 영혼 주님을 자랑하리니, 가난한 이는 듣고 기뻐하여라. ◎

○(우) 주님을 경외하여라, 주님의 성도들아. 그분을 경외하는 이에게는 아쉬움 없으리라. 부자들도 궁색해져 굶주리게 되지만, 주님을 찾는 이에게는 좋은 것뿐이리라. ◎

○(좌) 아이들아, 어서 와 내 말을 들어라. 주님 경외를 가르쳐 주리라. 삶을 즐기고 복을 누리려, 장수를 바라는 이 누구인가? ◎

○(우) 네 혀는 악을 조심하고, 네 입술은 거짓을 삼가라.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며, 평화를 찾고 또 찾아라. ◎

제 2독서 | 에페소서 5,15-20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십시오>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르리라.

◎ 알렐루야

복음 | 요한 6,51-58

영성체 후 묵상 |

하느님께서서는 우리 안에 머무르시기 위해 선택하신 방법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은 그 놀라운 신비를 이렇게 전합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성체를 영하고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키워달라고 끊임없이 청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서는 당신 사랑으로 우리 영혼의 눈을 밝히실 것입니다.

## Today's Gospel, <John 6,51-58>

Jesus said to the crowd: 'I am the living bread which has come down from heaven. Anyone who eats this bread will live for ever; and the bread that I shall give is my flesh, for the life of the world.' Then the Jews started arguing with one another: 'How can this man give us his flesh to eat?' they said. Jesus replied: 'I tell you most solemnly, if you do not eat the flesh of the Son of Man and drink his blood, you will not have life in you. Anyone who does eat my flesh and drink my blood has eternal life, and I shall raise him up on the last day. For my flesh is real food and my blood is real drink. He who eats my flesh and drinks my blood lives in me and I live in him. As I, who am sent by the living Father, myself draw life from the Father, so whoever eats me will draw life from me. This is the bread come down from heaven: not like the bread our ancestors ate: they are dead, but anyone who eats this bread will live for ever.'

그때에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그러자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 있단 말인가?” 하며,  
유대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너희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는 달리,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 <교회는 성체성사로 산다, 16항-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 회칙>

“성찬의 희생 제사는 본질적으로 영성체로 이루어지는 신자들과 그리스도의 내밀한 결합을 지향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내어 주신 바로 그분을 받아 모십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내어 주신 몸과, “죄를 용서해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신”(마태 26,28) 피를 받아 모십니다. 우리는,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의 힘으로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의 힘으로 살 것이다.”(요한 6,57) 하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삼위일체의 생명의 결합에 비유하신 이러한 결합이 참으로 실현되었다고 직접 우리를 안심시켜 주십니다. 성찬례는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의 양식으로 내어 주시는 진정한 잔치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놀라고 당황하자, 당신 말씀의 객관적 진리를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정말 잘 들어 두어라. 만일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을 간직하지 못할 것이다”(요한 6,53). 이것은 비유적인 양식이 아닙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며 내 피는 참된 음료이기 때문이다”(요한 6,55).

저는 교회의 사명은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어가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몸과 피와 이루는 친교에서 영적인 힘을 이끌어낸다는 것에 주목하고 이렇게 썼습니다. “성체성사는 교회를 이루고 교회는 성체성사를 이룹니다”. 성체성사의 목적은 “그리스도와, 또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부와 성령과 친교를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체성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하느님의 백성, 하느님의 성전, 하느님의 가족으로 커갑니다. 또한 교회는 구원의 보편 성사인 자신의 본질과 교계 구조로 가시화된 실재를 더욱 잘 이해하게 됩니다. 분명히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성찬례 거행에 그 기초와 중심을 두지 않으면 결코 세워질 수 없습니다”(33항; 사제 생활 교령, 6항 참조). 미사를 마치면서 주례 사제가 회중들에게 “미사가 끝났습니다(Ite, Missa est).” 라고 말할 때 모든 신자는 자신이 받은 크나큰 은총을 각자의 주변에 전달하도록 ‘성찬의 선교사’로 파견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사실 성체성사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모든 사람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 구세주의 자비로운 사랑을 선포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성체성사로 살아가려면 성체조배에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저 또한 날마다 성체조배에서 힘과 위안과 도움을 얻습니다(25항 참조).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성찬례가 “그리스도교 생활 전체의 원천이며 정점”(교회 헌장, 11항)이고, “모든 복음화의 원천이며 정점”(사제 생활 교령, 5항)이라고 확인합니다.

인간 노동의 결실이지만 성령의 힘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되는 빵과 포도주는 교회가 날마다 선교에서 선포하는 “새 하늘과 새 땅”(묵시 21,1)에 대한 약속이 됩니다. 성부께서는 성체성사의 신비 안에 현존하시며 흡수 받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와 인간 역사에 관한 결정적인 약속을 하셨습니다.

교회가 자신의 사명을 수행하려면 성찬례와 꾸준히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거룩하게 하는 이 양식으로 힘을 얻으며, 선교 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이러한 도움에 기대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세상을 복음화하려면 성찬 거행과 성체 조배, 성체 관상의 ‘전문가들’인 사도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어 주는 내 몸이다. … 이것은 내 피로 맺는 새로운 계약의 잔이다.”라고 축성문에서 강조하듯이 성찬례를 통하여 우리는 주님의 희생 제사에서 정점에 이르는 구원의 신비를 재현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성찬례가 역사 안에서 성사적으로 현존케 하는 구원의 선물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루가 22,19)고 하신 명령은 성품 성사를 통하여 성직자들에게 위임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 잔치와 희생 제사에 와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어 받도록 초대를 받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서 살고 나도 그 안에서 산다.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의 힘으로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의 힘으로 살 것이다”(요한 6,56-57). 그리스도에게서 힘을 얻은 신자들은, 점점 더 “한마음 한뜻이 되어”(사도 4,32)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 끝까지 증언할 수 있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거룩하게 된, 기쁘게 받아주실 제물”(로마 15,16)이 되는 것이 곧 선교 임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수세기 동안 하느님의 백성인 교회는 날마다 제대의 희생 제사를 재현하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스런 재림을 기다립니다. 성찬례에서 제대를 중심으로 모인 회중은 축성 후에 이를 선포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교회는 언제나 새로운 신앙으로, 당신의 보편적 구원 계획을 완성하려 오시는 분을 궁극적으로 만나 뵈기를 소망하며 이를 되풀이하여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쩔 수 없이 어려움에 부딪히며 십자가의 신비를 체험하는 이 일상의 영적 여정에서, 성령은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활동으로 그리스도인을 이끄십니다. 성찬례는 죄와 악에 맞서 싸우는 이들을 위한 궁극적 승리의 약속이며 위안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지탱시키는 ‘생명의 빵’이며, 이 빵을 받아먹은 사람들은 다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쫄개진 빵”이 되어, 때로는 순교에 이르기까지 복음에 충실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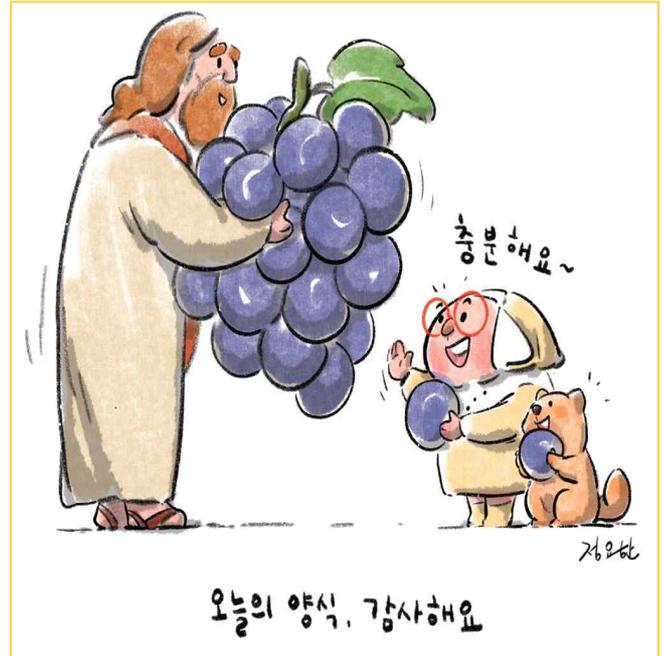
## 공지 사항

### 1. 견진성사 신청 안내

- \* 신청 기한: 8월 25일까지
- \* 교리 일정: 9월 1일부터, 매 주일 13:00~ 14:20
- \* 견진성사 일시: 9월 29일(주일), 오후 3시
- \* 견진성사는 12세 이상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2. 9월 한가위 미사 및 성당 행사

이번 해에는 추석을 맞이하며, 9월 15일 (주일)에 한가위 미사 및 행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미사 후 음식 나눔뿐 아니라 민속놀이 및 레크레이션 활동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자세한 일정은 추후에 공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사를 준비하며 성당에서도 자체적으로 경품을 준비하지만, 더욱 풍성한 한가위 행사를 위하여 신자분들께 물품 도네이션을 겸손되이 청해보고자 합니다. 도네이션을 원하시는 신자분들께서는 사목회위원 분들을 통하여 도네이션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 미사 참례자 수 |

8월 4일	유아·청소년: 31명	성인: 70명
8월 11일	유아·청소년: 25명	성인: 58명

### | 온라인 목주기도 모임 |

화	저녁 7시
Zoom 회의실 ID: 588-790-0921	
P/W: 69g58g	

### | 전례 독서 봉사자 |

이번주 (8월 18일)	주정자 루치아, 이민정 글라라
다음주 (8월 25일)	양홍석 베드로, 안영규 필립보

### 미사 후 뒷정리 및 예물봉헌 |

이번주 (8월 18일)	마르코반
다음주 (8월 25일)	마태오반

### | 우리들의 정성 | (8월 10일 ~ 8월 16일)

봉 헌 금	\$515.50			
교 무 금	\$610			
권모순	김요한	김정수	남궁영근	안영규
양홍석	윤현태	이국원	이지영	장호훈
정은영	조성민	조성희	주정자	

### | 기도 지향 |

- \* 전쟁으로 고통받는 모든 형제 자매들을 위해
- \* 이원순 글라라 자매님의 건강을 위해
- \* 예비신자 - 문서 자매님과 양주영 자매님을 위해
- \* 가르멜 수녀원, 성체의 안젤라 수녀님을 위해

### | 교무금 온라인 납부 정보 |

Name: Korean Community Church  
BSB: 062786  
Account Number: 000027424

- \* 이니셜이 아닌 영문 이름과 성 모두 표기해주세요.  
(예: Gildong Hong)